

現代戰爭에 대한 이해

- 최근 美國이 주도한 戰爭을 中心으로 -

조 정*

목 차

1. 서론
2. 전쟁 수행 개념의 변화(고대~현대)
3. 미국의 과거 전쟁경험과 이라크 전쟁
4. 이라크 전쟁 분석
5. 결론

1. 서론

2001년 9월 11일 중동의 테러리스트에 의한 세계무역센터(WTC)와 펜타곤(미국방부)에 대한 테러공격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예고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중의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통하여 오직 한가지의 결론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즉 적군이건 아군

* 육군사관학교 교무처장,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이전 서로에게 거대한 인명손실과 장비의 피해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심대한 국가적 재난 외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1945년 이래 핵무기의 발달은 이미 대규모 형태의 전쟁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였다. 1965년 쿠바 미사일 위기동안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과 구소련 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핵무기 사용은 인간통제를 벗어나 지구의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걸프전에서 미국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미국처럼 첨단기술과 전략을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무기와 기존의 전쟁 개념을 고수한 국가와의 전쟁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적은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불과 지상군 투입 100시간만에 상대국가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과 같은 군사력을 갖추거나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필적하려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계최강의 정보화 과학화된 무기체계로 무장된 미국이라 할지라도 걸프전쟁 이후 변화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여 9·11테러를 경험했고 3,0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미국 본토에서 희생되었다.

9·11테러 발생이전 중국공군 대령이 초한전을 통해서 장차전의 양상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전쟁, 마약전쟁, 사이버전쟁, 금융전쟁등 단일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결합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여 마치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예고하는 듯 하였다.

이에 필자는 미래 국가안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현대전쟁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최근 미국이 주도한 전쟁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하고자 한다.

2.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고대-현대)

과거전쟁사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무기체계나, 전쟁수행개념 변화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비한 지휘관이나 국가는 전쟁(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러하지 못한 지휘관(국가)은 패배한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표 1> 전쟁의 특징 변화

	전쟁의 특징	대표적 전례
고대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술적인 대형으로 전투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로 연결 ※ 전형적인 제한전쟁, 군주의 세력 확장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라톤 전투 ○ 허다스페스전투 ○ 칸네전투
나폴레옹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개병제 ○ 기동전에 의한 전략적 이점 쟁취 ※ 기동전에 의한 섬멸전 시대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투아전역 ○ 울름전역 ○ 워터루전역
제1차세계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력전 실시 전국민이 동원됨 ※ 후티어전술 및 꾸로의 중심방어 등 신전술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르느전역 ○ 탄넨베르크전투 ○ 브르실로프 공세
제2차세계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이며 무제한전쟁 ※ 공지작전(Airlandbattle)이론을 적용한 기동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전역 ○ 스탈린그라드 전역 ○ 미드웨이해전
걸프(Gulf)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유도무기 등 정밀폭격 ※ 공지작전(Airlandbattle)이론을 적용한 기동전 	
테러와 이라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칭적 수단에 의한 기습 ○ 새로운 합동전장 운영개념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작전에 의한 선제마비 • 정밀타격(Pin-Point), 선별타격(Soft kill) ※ 효과 기반작전(EBO)에 의한 신속 결정작전(RDO)개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테러 ○ 나시리아 / 나자프 전투 ○ 바스라 전투 ○ 바그다드 전투

<표 1>에서와 같이 인류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전쟁의 양상과 특징도 제 1의 물결전쟁(고대, 나폴레옹 전쟁)→제 2의 물결전쟁(제 1, 2차 세계대전)→제 3의 물결전쟁(Gulf, 이라크전쟁)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고대전쟁의 대표적 사례인 마라톤 전투, 히다스페스 전투, 칸네 전투등을 분석해보면 당시 무기인 창외 길이나, 활의 성능과 전술적인 대형으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었고, 그 승패가 결국 전쟁의 승패로 연결되었으며, 그 전쟁은 총력전의 형태가 아닌 영토 확장을 위한 제한 전쟁 형태로 이루어 졌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전쟁은 대부분 국민과는 관계없는 봉건 영주나 국왕자신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전쟁은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의 전쟁이 된 것이다. 프랑스에 대한 간섭은 전 국민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여 국민 대 국민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즉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면서 전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었고 국민 개병제가 확립되었다.

나폴레옹이 주도한 전역들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의 힘을 통합하여 병력을 소집, 군대를 조직하며 이를 결정적 지점, 결정적 시간에, 상대적 우위를 달성케하여 적과 싸워 승리한다는 것이다.

제 1, 2차 세계대전기간 중에 인류는 그들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을 기초로 과거전쟁에서 그러하였듯이 적의 취약점을 확대하여 승리하는 방법으로 “적의 군대를 파괴” 하는 것을 전쟁의 핵심목표로 삼아 결국에는 그들이 발전시킨 무기체계와 전술을 무차별하게 활용하거나 소비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였다. 이렇듯 불운한 전쟁의 낡은 유산을 수행하고 남기도록 한 것은 당시 지휘관들이나 지도자들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명시된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상대편 군대의 육체적, 물리적 파괴를 기초한다.” 라는 이론의 신봉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이고 무제한적인 대량살상 전쟁은 무기체계

와 정보능력의 발전으로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에서의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쟁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두고 인류는 반성하고 고민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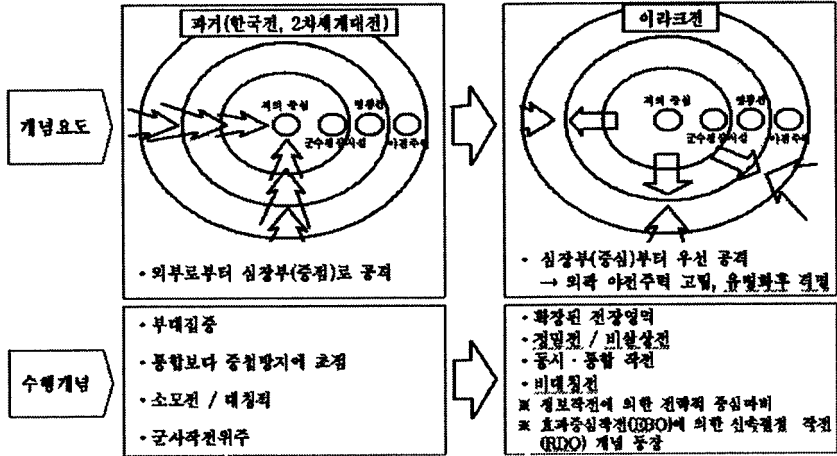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전쟁수행개념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쟁상황 파악과 의사결정시간이 과거 고대에는 수주에서 몇 달이 걸렸고, 제 2차 세계대전시에는 수 시간에서 몇 일이 걸렸으나, 최근 아프칸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는 실시간(Real - Time)대로 줄어들면서 지휘관이 전쟁상황을 TV화면 보듯이 파악하면서 전쟁수행이 가능해졌다.

2.1 미군이 적용한 전쟁 수행 개념

최근 미군이 수행한 이라크戰을 보면 과거와 달리 다른 방식의 전쟁수행개념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전쟁수행 개념은 부대를 집중 운용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거나 육·해·공군의 통합보다는 전력운용의 중첩방지에 초점을 두었고, 대량폭격(Carpeted Bombing) 등 소모전 및 군사작전 위주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군사력 운용도 전방(외부)에서 심장부(중심)로 공격하는 형태의 개념이었다. 최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 무기체계의 발전, 정보수집능력과 대량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전쟁수행 방법에 대한 비난에 따라 더 이상 기존 전쟁수행 개념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현대전쟁의 효시가 된 Gulf戰을 통해서 미국은 21세기의 미래 전쟁 수행 개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연구, 발전시켜 금번 이라크戰에서 「미래戰」 개념을 도입 적용한 것이다. 금번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 수행 개념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첫째, 확장된 전장영역을 들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전장영역이 시간적, 전자기적(電磁氣的), 인간적 또는 사이버(Cyber)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라크에서 싸우는 미군들에게 「전선이 어디인가?」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마도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그것은 미국본토에서, 바다에서, 사이버(Cyber) 공간에서,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전선이기 때문이다 이라크군의 전쟁지휘조직(System)을 파괴시키기 위한 E-Bomb와 같은 폭탄을 사용한 것도 새로운 전쟁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例)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밀전 / 비살상전이였다.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는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보, 정찰, 감시(ISR)자산의 결합, 정밀무기, 우수한 표적 처리와 더불어 정교한 전천 후 공중타격 즉 “효과에 기초한 타격”을 통한 이라크 지휘부에 대한 집중 선별타격(Targeted action)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걸프(Gulf)전에서 결정적 대량폭격 / 공격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셋째, 동시·통합작전으로 전력극대화가 가능했다. 분산된 육·해·공군은 각각의 분산된 부대가 동시 / 시차적으로 범 세계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종전 후 합참의장 리차드 마이어(Richard Myer) 대장은 “육군, 해군, 공군의 통합은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다.” 라고 평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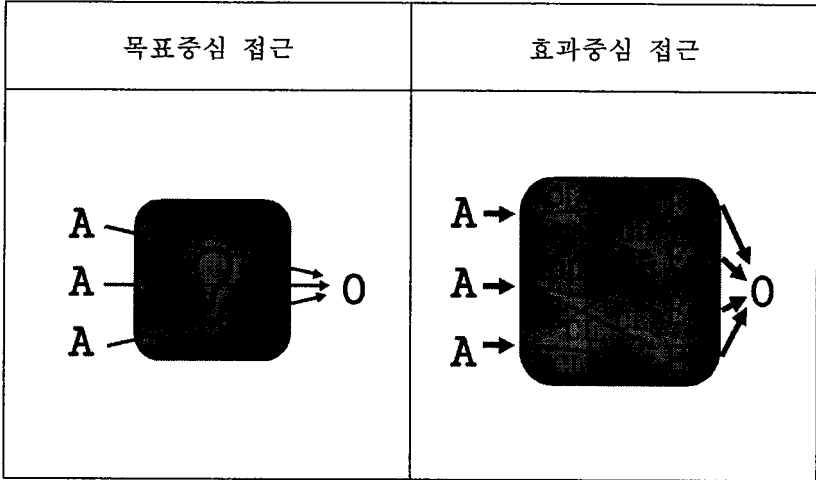
넷째, 정보작전에 의해서 전략적 중심인 후세인 지휘체계를 완전히 마비시켰다. 물리적 작전은 정밀타격(Pin-point), 선별타격(Soft-kill) 등 외과수술적 목베기 공격(Surgical/Decapitation Attack)을 통하여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여 후세인 병력의 전투의지를 말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모든 개념들이 금번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미군의 작전개념이며, 이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효과기반작전(EBO)에 의한 신속결정작전(RDO)개념의 적용이다.

효과기반작전(EBO)이란 <표 3>에서와 같이 분쟁의 모든 수준에서, 아군이 가용한 모든 군사 또는 비군사적 능력을 상승적으로 적용하여 적으로부터 아군이 원하는 전략적 결과나 효과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효과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특정한 군사 또는 비군사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적, 기능적, 심리적 결과 및 사건 또는 산물로서 비요망, 비예상 분야를 포함한 행위의 모든 결과를 포함하며, 목표는 단지 달성된 결과, 요망된 결과만을 포함한다.

신속결정작전(RDO)은 지역적 적국에 대항하여 전력을 집중, 비선형 전장에서 전역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적의 전략, 작전적 중심을 격멸하기 위해서 합동군 지휘관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등 전력을 균형있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작전개념으로서 효과기반작전(EBO)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

<표 3> 목표중심의 접근방법(기존방식)과 효과중심의 접근방법 비교



A = 행동 / CL = 인간관계 / E = 효과 / O = 목표

한국전에서 39만명(미군 3.7만명, 연합군 포함)이라는 전사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걸프전 293명, 이라크전 149명으로 인적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작전기간 역시 한국전 3년에 비해 이라크전은 불과 3개월만에 종전하였다. 전쟁 소요경비는 한국전에서 1,650억불, 걸프전 760억불, 이라크전 200억불(안정화 작전 제외)로 저소비비용으로 전쟁효과는 확대되었다. 이러한 작전은 「생각과 개념」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군의 구조, 정보능력, 무기체계 등 복합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한·미연합체제에 의해서 작전이 전개되는 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작전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작전을 종료시킨다는 면에서 효과기반작전(EBO)에 의한 신속 결정 작전(RDO) 개념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2.2 중동 급진세력의 전쟁 개념은 무엇인가?

한편 미국과 대응하여 싸우는 일부 급진 세력이 있는 중동 국가들의 전쟁수행 개념은 무엇인가?

미 국방부가 2003년 의회보고서에 명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기습과 비대칭성”을 두고 있다. 1991년 걸프전쟁은 무기와 성능이 매우 정확하고, 매우 파괴적이어서 전쟁터에서 기존 조직적인 군대의 생존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위성이 가리키는 GPS체계의 완성으로 전장에서 군인들의 취약점이 커졌고, 정밀화된 유도탄은 지구상의 어떤 목표물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최고의 군사능력을 보유한 미국과 기존의 군사력으로 대항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일부 급진 세력이 있는 중동국가들은 미국이 위협요소로 선정한 “기습과 비대칭성”에 바탕을 둔 전쟁수행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써 “9·11테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의한 “기습”으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소수인원으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본토 중심부에서 자행한 것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있는 미국인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게 되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기습적인 테러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미국이 주도한 군사 정규작전에 의해서 희생된 것보다 주요 군사작전이 종료한 후 안정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무차별 폭탄테러로 인한 미국인들의 희생이 훨씬 큰 것을 보면 중동 급진세력들이 추구하는 기습과 비대칭적 방법이 전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듯하다.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이라크로부터

병력을 철수하였고, 최근 김선일씨 피살로 인해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국내문제, 더 나아가 한·미 관계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논의된 것은 테러리스트들의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에는 매우 회의적임. 세계 서방국가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 국가도 그러한 방법을 반대하고 있고 도리어 테러와의 전쟁 대열에 미국과 함께 동참하고 있음)

3. 미국의 과거 전쟁경험과 이라크 전쟁

필자는 최근의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과거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교훈들이 정확히 분석되어 이라크 전쟁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거 전쟁들이 어떻게 이라크 전쟁에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베트남戰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월남지역에서 「공산세력의 붕괴」라는 명목 하에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한 국가가 공산국가가 되면 그 이웃국가도 차례로 공산국가가 된다는 도미노(Domino)이론에 근거를 둔 미국의 정책은 월남에서 철수하는 1973년까지 18년 동안 크게 2가지 형태로 전쟁에 개입했다가, 1973년 1월 28일 파리평화회담에서 평화조약이 조인되면서 막을 내렸다.

제 2차 세계대전시 최강의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킨 미군이 불과 20년 후 열악한 군사력을 지닌 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의 18년 전쟁에서 패배 후 철수하면서 미군들은 중이호랑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베트남 증후군」에서 오랫동안 시달려 왔었다.

최근 아프칸(Afkan)戰이나 이라크(Iraq)戰을 수행한 주요지휘관들이 대부분 베트남(Vietnam)戰에 위관 또는 소령급 장교로 참전한 군인들로 그들이 베트남(Vietnam)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고 느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실패는 조용히 제한전쟁을 실시하고자 한데서 기인한다. 전쟁 당시의 국무장관 딘 러스크(Dean Rusk)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한전을 원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전쟁분위기 조성을 신중하게 삼가했으며, 베트남에 대한 미국민의 분노를 조장하지도 않았다. 또한 군대의 시가행진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경찰업무”처럼 취급함으로써 가능한 조용히 수행하였다.” 당시 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조용히 “경찰업무”처럼 소위 ‘그림자 전쟁(Shadow War)’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의지를 제외시켰고, 전장에서 싸우는 미군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투를 해야하는지 모르고 싸웠던 것이다.

둘째, 애매모호한 전쟁의 목적과 그 목적의 변질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통제됨으로 전쟁 목적의 가치는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기 위한 희생을 이들의 크기와 지속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전쟁의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시 미국 참전의 정치적 목적은 국가의 생존이었다. 생존을 추구함에 있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미국 국민들은 「전쟁의 명분」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전선에서 싸우는 미국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베트남戰에 개입한 미국의 전쟁목적은 애매모호하였으며, 전쟁기간중에 변질되어, 미국 국민의 희생과 전쟁비용의 타당성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반전운동이 확산되었으며,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戰의 베트남화(Vietamization)」 방식을 채택하여 철수하게 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실패요인으로 아무리 우수하고 풍부한 무기와 물자가 있더라도 인간의 의지가 결여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과 미군들의 25%가 마약을 사용하고, 상관을 살해하며, 허위 보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등을 예로 들면서 미군들을 비판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쟁목적 변질, 국민의 지지결여로 베트남戰에서 미군들은 ‘한 손을 등에 묶고 싸우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지만 마치 축구에서 패했을 때 각종 문제점들을 오직 감독과 선수들에게 뒤따르듯이 미군들에게만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다.

베트남戰을 통해서 미국은 「국가 : 전쟁목적 제시」, 「군대(전쟁수행 주체) : 냉철한 이성」, 「국민(전쟁지지) : 전쟁 원동력」이라는 삼위일체가 필수적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금언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3.2 걸프(Gulf)戰

1991년의 걸프(Gulf)전쟁은 현대 국제정치의 중요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이 전쟁은 한국전쟁이후 유엔(UN)이라는 국제조직에 의해서 미국 주도하 공권력 사용이 정당화된 사건이었다. 즉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에 대해서 유엔(UN)이 엄격하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걸프(Gulf)戰은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구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그의 의지대로 군사력을 집중 투입하여 상상을 초월한 현대전쟁의 양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걸프(Gulf)戰의 경과, 전략적 / 작전술 차원에서의 분석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이라크戰이 미국과 미군들

에게 어떤 의미와 경험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전쟁목적은 후세인을 응징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 군으로부터 원상회복하며 중동질서를 확립하여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전략은 이라크군의 중심인 공화국 수비대를 무력화하며 이를 위해 공지전투(ALB)에 의한 기습 단기 결전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목적과 군사전략 하에서 전쟁을 실시한 결과 단지 6주간의 폭격과 100시간의 지상군 기동에 의해서 이라크軍은 전쟁의지를 상실하였고, 후세인은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걸프(Gulf)戰을 통해서 과연 미국은 그들이 제시한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필자의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실제로 필자가 미국의 국제문제연구소(B·U)에서 많은 학자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걸프(Gulf)戰은 단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여론을 상승시켰고, 베트남전 증후군을 불식시킨 것 외에 미국이 달성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평가절하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즉 필자의 의견은 걸프(Gulf)戰을 가시적인 전쟁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지상군 작전의 종료시점이 너무 빨랐다는 것이다

당시 파월 합참의장은 “더 이상 공격은 미국답지 못하며 기사도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시에게 조기 종전을 건의하여 부시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우방인 영국과 사우디는 도저히 부시의 종전명령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부사령관이었던 슈와츠코프 장군도 TV회견에서 “나는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종전명령에 대해 미군부대 여러 관계자들의 입맛을 썹썹하게 한 것은, 미국 정치권이 군사작전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종전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과연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은 그들이 12년 후 이라크戰에 다시 투입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과거 전사를 보면 정치가 군에 개입하여 실패한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차 세계대전시 「히틀러의 광적인 개입」이다. 과거의 유래 없이 독일의 장군이나 장교들-부사관들까지-은 유능했으며 전술에 정통한 집단이었으나 히틀러의 그릇된 정치적 개입에 의해 그들은 패망하였다.

반면에 최근의 아프칸(Afkan)戰과 이라크戰에서 중부사령관인 프랭크스 대장에게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보장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리더쉽이 발휘된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즉, 필자는 걸프(Gulf)戰은 미국과 미군들에게 이라크 지역에서 그들의 신무기 체계와 교리를 마음껏 실험했던 것 외에 전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금번 이라크戰에서 미군들이 최초로 지상군을 투입한 것도 알고 보면 걸프(Gulf)戰에서의 교훈을 통해 군사작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상군에 의한 이라크지역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걸프(Gulf)戰이 미국에게 주는 의미는 첨단화된 현대 전쟁 양상과 무기체계, 교리들을 시험한 것과 베트남 증후군을 떨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3 9·11테러와 아프칸(Afkan)戰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는 미군의 전력재편과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출범했다.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대비태세의 약화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미군의 능력을 재건하고 미래의 도전을 준비하는데 투자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도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전을 뛰어넘는 국방력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미국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소련을 대체할 적대세력이 없는 평화적 지구촌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9·11테러로 인하여 3,000명의 희생자가 미국의 중심도시에서 발생하자 미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이 더 복잡하고 위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미국은 잠재적 도전과 비대칭적 위협에 스스로가 노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뉴욕, 워싱턴 및 펜실베이니아 상공에서 자행된 테러공격이 있는지 한달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모든 영향력과 힘을 동원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활동이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첫번째 군사작전이었다. 미군의 대형 폭격기들은 10월말까지 마자르 이샤리프(Mazar-iSharif)와 여타 핵심지역에 배치된 탈레반군을 맹폭했다. 미군은 지상군과의 협조 하에 주요 도시들을 탈레반의 지배에서 신속히 해방시켰다. 11월 10일에는 마자르 이샤리프를, 11월 16일에는 카불(Kabul)을, 11월 26일에는 콘두즈(Konduz)를, 그리고 12월 7일에는 칸다하르(Kandahar)를 해방시켰다. 12월 14일에는 미 해병대가 칸다하르 공항을 접수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2개월만에 미군과 연합군은 초기 목표를 달성했고, 아프칸의 지속적인 반 테러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프칸 전쟁 초기에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새로운 전투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미 특수부대는 지상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아프칸내의 반 탈레반 세력과의 협력 하에 아랍해의 항공모함에서부터, 그리고 동 지역 및 심지어는 미 본토의 지상기지에서도부터 발진된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미군은 각종 정보

자산을 활용하여 적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지상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인간정보를 제공했다. 유인 및 무인정찰기는 영공에 대한 정찰을 계속했다. 이들 정찰기에는 레이더 체계,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신호정보수집 체계가 장착되어 있어 투입된 미군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전개념을 작성해냈으며, 알 카에다와 탈레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 탈레반의 붕괴를 촉발한 마자르 이샤리프에서의 전투는 고도의 네트워크에 의한 연합작전의 잠재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9·11테러와 아프칸(Afkan)전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전쟁형태를 경험하였다. 미군이 실시한 21세기의 전쟁은 공개적인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경제, 외교, 심리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한 전쟁이었다. 또한 「이슬람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명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상군 부대는 산악지형에 적합한 특수전부대 위주로 투입하고 북부동맹군을 지도하는 형태의 작전을 실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21세기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9·11테러와 아프칸(Afkan)戰 결과 미국은 미국의 지리적 위치가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 안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인 아시아(북한), 중동(이라크, 이란등) 지역에서 안정성을 위협할 능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과 비 정부세력의 군사능력 확산과 분쟁원인 및 수단 등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21세기의 전략환경을 「불확실성과 기습」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협요소에 대비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의 전쟁 필요성을 미국은 느꼈으며, 이라

크戰을 미국 주도하 실시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3.4. 미국의 과거 전쟁경험이 이라크戰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

미국은 금번 이라크 전쟁에서 부시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악의 축”의 하나인 후세인 정권을 이라크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중동지역에 미국이 주도한 질서를 재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사전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관련 국가들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였고, 또한 유엔(UN)의 반대와 세계 반전여론에 부딪쳤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미국 주도하 이라크 전쟁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어떤 내용의 교훈이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4>에서와 같이 금번 이라크戰을 분석해보면 과거 미군이 경험했던 전쟁 경험들이 교훈이 되어 그대로 투영된 바, 과학기술과 함께 그들의 전쟁형태도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지난 아프칸(Afkan)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연장선상에서 과거 걸프(Gulf)戰이라는 미완성의 전쟁을 종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후세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여 부시 대통령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즉, 걸프(Gulf)戰이 이라크戰의 제1라운드였다면, 금번 이라크戰은 최종 라운드였던 것이다. 군사전략면에서 핵심요소로 첫째로는 이라크의 고립과 지도부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두번째로 이라크 지도부 와해에 따라 이를 신속히 대처할 신뢰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평정을 위해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점령을 군사전략 목표로 선정하여 완전한 파괴보다는 마비에 주안을 두고,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상군을 초기에 투입한 것은 이라크 점령에 의한 통제만이 전략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과거 전쟁경험의 교훈이 반영된 듯하다.

<표 4> 과거 전쟁경험이 이라크戰에 투영된 내용

과거 전쟁 교훈		이라크 戰
월남戰	①명확한 전쟁의 목표설정 필요 ②군사작전을 지도할 전략수립 필요 ③“전쟁가치”를 국민에게 설득 국민 의 지지 필요	①명확한 전쟁의 목표설정 ②군사작전을 지도할 전략 수립 ③전쟁의 가치를 국민에게 설득하여 국민의 지지 획득 ⑥⑧군사작전 성공이 전쟁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초기에 지상군 투입 및 지상군 주둔 → 친미정권 수립 ⑦도시지역 작전(바그다드 등)으로 피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고하여 설득함 ⑨외교, 군사, 심리전 등 다양한 방 법 적용 ⑩효과중심작전(EBO)에 의한 신속 결정적작전(RDO) 실시 ※ “미래 戰”양상의 전쟁 수행
걸프戰	④공지전투 교리 시험 적용 ⑤간접 접근 전략에 의한 기동전격전 구사 ⑥지상작전 조기 종결로 전쟁목적 미 달성 ※“월남전 증후군”에서 탈피 계기	
코소보戰	⑦정치적 논리에 군사작전 제한 (병력손실, 민간피해 발생) ⑧미사일 공격, 항공기에 의한 공습 만으로 군사작전 목표달성 불가능 ※지상군에 의한 통제만이 군사작전 목표달성 가능	
아프간戰	⑨포괄적 접근 전략 외교, 군사, 심리戰 등 ⑩대량 공격이 아닌 정밀폭격으로 효과달성 ⑪비대칭 전략의 극대화 ※ “미래 戰”양상의 전쟁 시험	

도시지역에서의 작전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이나 중부사령관이 직접 설명하면서 국민을 설득하여, 민간인 피해로 인한 반전여론에 대비한 것도 미군들의 사전 전쟁준비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금번 이라크戰에서 미군의 전쟁수행 방법면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Gulf戰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한 효과기반 작전(EBO : Effects-based Operations)에 의한 신속결정작전(RDO : Rapid Decisive Operations)이다. 과거 Gulf戰과 아프칸戰에서의 전쟁은 무력충돌이 단기적이고 결정적이며 사상자들이 과거 전쟁과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적게 발생하고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군은 확신하였으며, 그러한 성공사례를 통해서 작전의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켜서 금번 이라크전에 적용했던 것이다.

4. 이라크전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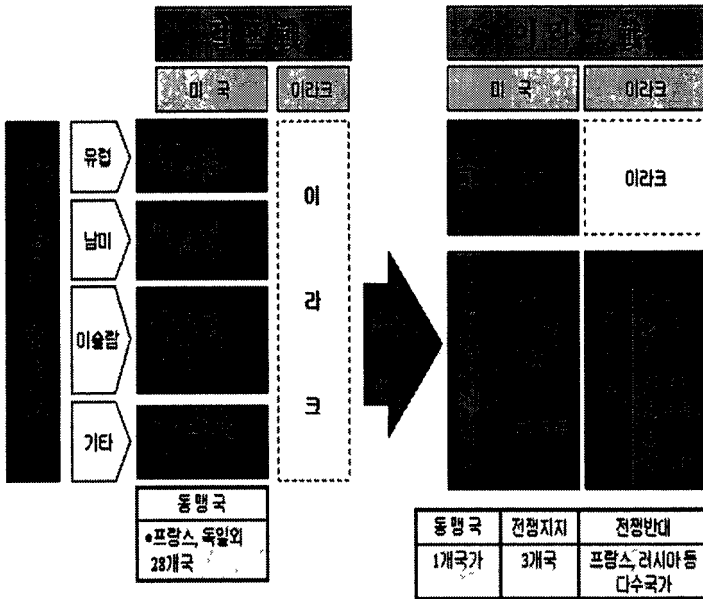
4.1 군사협력(동맹)개념의 변화

지금까지 국가간의 협력(동맹)관계는 국가간의 전통적인 역사로부터 출발한 명분과 우호 관계로부터 군사협력 또는 동맹관계로 발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아래 표“5”에서와 같이 미국이 동일한 영토에서 후세인정권과 치른 걸프(Gulf)전과 이라크전쟁을 살펴보면 미국과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군사협력, 묵시적인 승인, 적극적인 전쟁반대 등 국제관계의 변화로 “새로운 개념의 군사동맹”을 인식할 수 있었다.

<표 5> 군사협력 / 동맹국가 변화

	미 국	프·독 서방국가	중·러	사우디 등 이슬람국가
걸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 보유통제 → 미국안보 위협차원 • 이집트의 민주주의 체제확산 - 중동지역 미국의 영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략자 후세인 응징에 따른 세계여론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의 관계개선 필요 • Gulf전 북인파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라크의 중동지역 영향력 확대 경계
이라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안정적 식유 확보 • 미국의 가치관, 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이라크 분열시 대 이라크 영향력 상실 (원유개발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이라크지역 영향력 확대 → 중동지역 중·러 영향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동지역 영향력 확대 경계



걸프(Gulf)전의 원인이 된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시 세계적인 여론과 공동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엔(UN)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아래 쉽게 이라크군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서방 진영은 물론 이라크주변 이슬람 국가도 적극적으로 다국적군에 참여하거나 작전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는 정치적 명분보다는 국가적 이익이나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서방진영, 러시아 / 중국,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유동적 / 일시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의 요인은 상황 변화에 따른 이해득실을 세부적으로 고려한 각국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초한전」에서는 “냉전 종식후 국제관계는 의식형태를 기초로한 동맹의 시기가 사라지고, 이익을 기초로한 동맹의 방식이 주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즉,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도의(道義)만을 따지는 동맹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미래의 “이슬동맹”을 예고하였는 바 걸프(Gulf)전과 이라크전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역학관계를 분석할 때 “미국은 영원한 혈맹국가”라는 우리식의 생각과 기대, “북한이 우리민족이기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버리고 국가이익에 기초한다는 국제관계의 현실을 깨닫고 대처했을 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될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2 도시지역작전을 통한 군사작전 목표달성

급변 이라크전쟁의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지역작전」을 통해서

군사작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군사력이 이라크 주요도시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바그다드 지역에서의 미군과 이라크군이 대치하여 시가지 전투를 실시하는 장면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마치 전쟁영화를 보는 듯 하였다는 점이다. 과거 미군들에게 「정글과 도시는 피하라」는 전쟁의 원칙처럼 인식되어 왔던 것과는 다르게 “왜 미국은 미군들의 피해와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도시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했는가?” 그 의문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반도 지역에서 서울 수도가 휴전선 근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도시지역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분석에 앞서 참고로 독자들이 용어 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지상작전교리(야전교범 100-1)에는 도시지역작전(후방지역 작전의 한 형태)과 건물지역 공격·방어작전(특수조건하 작전)으로 구분하였고, 교육회장(03-3-18)에서는 「도시지역작전, 특수조건하 작전 / 공격·방어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각종 전쟁사 전례집에는 「시가지 전투」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혼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필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한 「도시지역작전」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도시지역작전은 도시를 확보함으로써 전략 / 작전술 또는 전술적인 이점을 이용하거나 적이 도시지역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 부대가 기동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우회할 수 없을 때
- 도시확보가 작전목적 달성에 기여할 때
- 도시가 일반적인 기동로상에 있으며 포위할 수 없을 때
- 정치적 또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도시확보가 요구될 때

역사상 도시지역작전의 주요전례는 과거 제2차세계대전시 독일과 구소련이 실시했던 스탈린그라드전투와 6.25전쟁시 한반도에서의 평양탈환전이 도시지역작전의 주요 전례라 볼 수 있다.

<표 6> 도시지역작전 주요전례

구 분	기 간	실 시 이 유	결과(승리)
스탈린그라드 전투 (독일 · 소련)	1942. 8 ~ 194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틀러 개인의 공산주의자와 스탈린에 대한 증오심과 단순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시 ※ 결국 소련과의 전쟁에서 독일의 패인 됨 	소련 (방어부대)
평양탈환작전 (한 · 미 연합군 · 북한)	1950 10. 19 (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또는 북한해방이라는 인도적 관점 • 서부지역 병참선의 중심지역 도시 ※ 도시확보가 군사작전 목적달성에 기여 	한 · 미 연합군 (공격부대)

위의 <표 6>과 같이 히틀러는 광적인 증오심 때문에 불필요한 도시지역작전을 전개하여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한 · 미 연합군은 김일성 치하에서의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고 작전선의 중심 지역에 있는 평양을 탈환함으로 군사작전 목표에 기여한 전례를 보면서 도시지역작전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금번 이라크전의 경우 도시가 갖는 의미는 미군과 이라크군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략적 / 작전술 차원에서 볼 때 걸프(Gulf)전에서는 공중공격에 이어 지상군의 기동만으로 이라크 군의 전쟁의지를 말살하여 전쟁목적인 「쿠웨이트 영토 회복과 후세인에 대한 응징」이 도시지역 점령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서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는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상군에 의한 이라크 점령 /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미국은 깨달았으며, 이라

크군에서 볼 때 Gulf전 분석 결과 사막지역에서 전투는 미군들에게 정확하게 목표를 제공하여 치명적으로 전투력이 손실될 것이 예상되어 이라크군을 도시지역으로 배치하여 미군과 민간인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세계여론을 이라크에 유리하게 하며 미군들이 가장 꺼려하는 도시지역에서의 전투를 미군에게 강요하고자 했다.

이라크 도시가 갖는 군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미국측에서 볼 때 바그다드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핵심지역이고, 이라크군이 도시지역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결과 이라크군을 격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시지역작전을 통해서 군사작전 목표달성을 해야 했다. 기타도시는 병참선을 확보하거나 바그다드를 포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로 각각의 「도시지역작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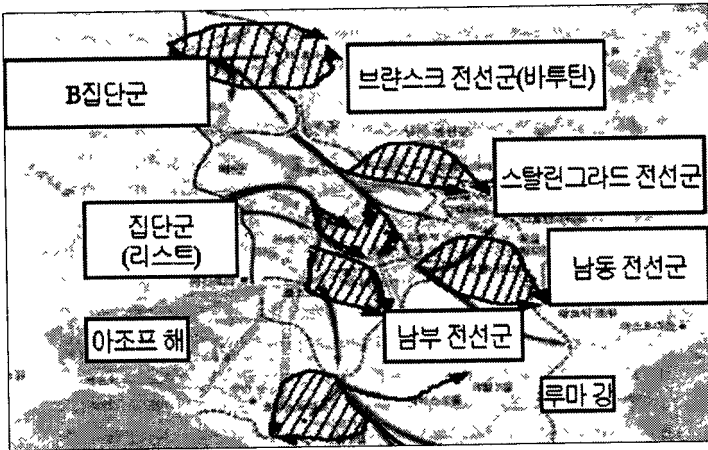
<표 7> 도시지역작전 실시이유

구 분	도시가 가지는 의미(미국의 관점)
바그다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세인정권 제거의 상징적 도시 : 이라크 수도 • 정치적, 인도적 관점에서 도시확보 요구 • 적의 주력부대 배치 · 군사작전 목표
바스라, 나시리아, 나자프, 카드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지상군 기동을 위해서 도시지역 통과 필수 • 병참선 확보를 위해서 필요 <p>(쿠웨이트 → 바그다드에 이르는 병참선상의 도시)</p>
모술, 아트빌, 키르쿠크, 티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그다드 포위를 위해서 필요 • 이라크 지역통제를 위해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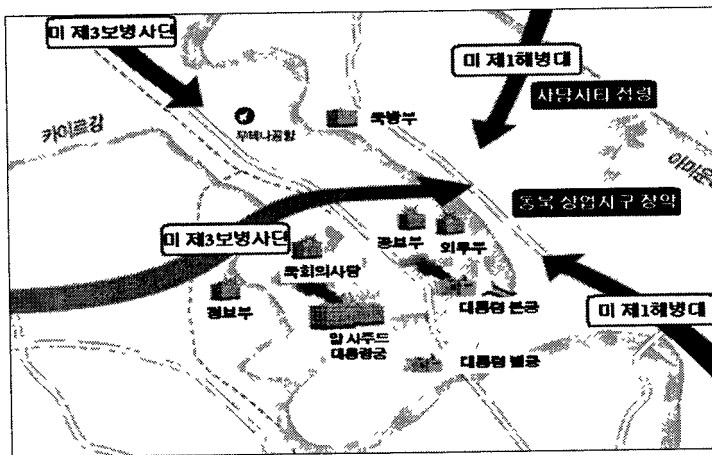
위의 <표 7>에서와 같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가 갖는 의미가 군사작전 목표로 직결되었으며 반면에 이라크군 입장에서 볼

때 도시지역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미군의 효율적인 작전을 제한시키고자하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보였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바그다드 전투」를 통해 전술적 차원에서 「도시지역작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탈린그라드전투>



<바그다드 전투>

위의 2가지 전례의 기동계획을 볼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시 독일군이 시도했던 전술은 지극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포위하여 구소련군 방어선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도시를 점령해 들어가는 「포위전술」을 시도한 반면에 이라크 전투에서 미국은 바그다드시 확보를 위해 재래식 시가전을 과감히 탈피하여 보병 위주의 시가전을 하지 않고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동원한 기동전을 실시하였다. 4월 5일 미 보병 제 3사단 2여단 소속부대가 실시한 위력수색에서 기동위주의 시가전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미 중부사수뇌부는 D+18(4월 7일) 미 제 3보병사단 2여단 예하의 2개 전차대대와 1개 기계화 보병대대는 대전차용 A-10기와 무인정찰기 등의 호위를 받으며 전차 70여대와 브래들리 장갑차 50여대를 앞세우고 시내에 진입하였다. 이들 부대는 동서남북으로 발달된 내부 고속화도로를 차단하여 바그다드 시내를 여러지역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후세인 궁전 3곳 등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시설을 접수하였다. 분리된 지역에서 저항하는 적은 근접항공지원(CAS)을 이용하여 격멸하였는데 원래 시가전에서 근접항공지원이 제한되었던 이유는 피아식별이 제한되고 지상군과 조종사간 교신이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에서 근접항공지원이 가능하였던 것은 각 군과 C4I의 상호운용성의 증대와 정밀항공지원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시가전시 지상군이 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공군이 근접항공지원으로 그 지역을 화력으로 제압했고 지상군은 먼지로 인한 시야 방해로 현장을 이탈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전투개념 수행시 장차 지상군의 시야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수색 등 지상군이 시가전에서 지속적으로 표적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바그다드 시가전을 통해 미래 시가지 전투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었다.

과거 서구인들의 기본관념은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살상 자체를

더부시하는 경향이 있어 「도시지역작전」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군들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함께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을 깨달아 「도시지역작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美교육사에서 심도 깊은 교리연구와 야전부대에서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바그다드」 지역 전투에서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 성과를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한반도의 경우 서울은 교통, 경제, 문화, 인구 등 모든 중심지역이 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성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면서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 한반도 전쟁 발발시 「수도권 지역의 주민」, 「통신 / 전기시설」, 「도시 GAS시설」 등이 북한군의 다양한 방법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실태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갖는 의미는 전쟁의 승패와 관련되며 평양이 가지는 의미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지역 주민들이 독재로부터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이 한반도에서 더욱 부각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양상 변화 추세에서 우리군의 편제와 훈련, 무기와 장비는 도시지역 작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학교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군의 지휘관들이나 간부는 장차 한반도에서 전개될 도시지역작전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부대를 성공적으로 지휘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감히 자문해 본다.

4.3 사막지역에서의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전쟁이란 상이한 두 의지간의 폭력 행위로서 그 본질은 승리하기 위한 힘의 최대 발휘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본질인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데 전투력,

시간, 공간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기상과 지형은 시간 / 공간적 요소 중 자연현상으로 전시에 매우 중립적이지만 자연현상에 겹쳐지게 사전 대비한 국가나 지휘관에게는 승리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 요소가 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적군보다도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고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지형과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 전례를 중심으로 도표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라크전의 경우 사막지역과 모래바람이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모래폭풍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 미사일 등 화력장비에 미치는 영향

- 레이더(R/D)탐지 불능으로 사격제한 또는 불가능
- 미사일 목표물 탐지 불능으로 사격제한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시계 불능으로 오인 사격 다수(관목을 이라크 전차로 오인)
- 호흡기 및 눈의 질환으로 전투력 감소
- ※모래바람 부는 기간동안 美軍작전 불가능

• 기동장비에 미치는 영향(차량, 전차, 전투기)

- 엔진필터를 막아서 가동 불가능
- 엔진부품 마모를 가져와 안전에 결정적 위협
- 전투기 이륙 불가능
- ※공격헬기, 수송헬기 2대 추락 원인이 됨

지형 및 기상이 전쟁이나 작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금번 이라크전에서 사막의 모래폭풍은 대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발생하였다. 중동지역에서 모래폭풍이 3월~4월말에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이 기간에 일교차가 20도 이상 차이이기 때문이다

모래폭풍을 아랍어로 하마신(50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까닭은 모래폭풍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50일 동안 주로 발생하는데서 연유한다. 모래폭풍은 4월에 가장 심하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 되면 일교차가 줄어들며 모래폭풍도 수그러든다 이라크는 산악 지대인 이란과 달리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사막기후의 특성인 심한 일교차로 인해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듯 모래폭풍이 화력 / 기동장비, 인체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작전에 결정적인 요소로 대두되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는 4계절이 뚜렷하다. 계절변화가 작전에 미치는 영향, 중·획격실로 발달된 산맥과 하천, 서부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 및 도로망이 어떤 영향요소로 작용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비하였을 때 기상과 작전환경은 부정적인 영향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영향 요소가 되어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4.4 미디어 전쟁의 중요성

역사가 테일러(Philip Taylor)는 「선전(Propaganda)」은 「고대 그리스시대에 성년이 되었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혁명으로 매스미디어가 생겨난 후 다시 한번 성년을 맞았으며 과학기술과 함께 현대의 「선전(Propaganda)」, 미디어 모두가 혁신의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항상 언론과의 또다른 전쟁을 치른

경험 때문에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과의 전쟁시절 「밀라이학살」 관련내용을 언론이 미국 전역에 공개하면서 반전여론이 미국전역에 팽배해졌고 급기야는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어 미군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언론은 철수하는 미군들에게 도덕적으로 오염되었고, 무기력한 용기 없는 종이 호랑이 같은 군인이라 비난하여 미군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걸프(Gulf)전에서는 미국언론과 국방부간에, 군의 언론 조종시도와 기자들을 지상전에 대동시키지 않은 고의적인 언론정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었다.

금번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과거의 교훈을 반영한 듯 군과 언론관계를 해소하고 군작전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중군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자들을 야전에 배치하여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자유롭게 기사를 쓰도록 허용한 것은 기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군의 시각에서 동조하는 글을 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중부 사령부에서 효율적인 「연합보도본부운영」을 통해서 작전브리핑, 보도자료제공 등 미국에 불리한 점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매우 돋보였다.

전쟁 기간중에 미국과 이라크는 세계적인 쟁점으로부터 개인 인신공격까지 미디어를 통한 또 하나의 전쟁을 치루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CNN과 아랍계 방송의 대표인 알자지라의 언론보도는 상호 비교되면서 이라크전쟁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한 또다른 전쟁 즉, 뜨거운 언론 전쟁을 전쟁기간내내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이 라디오 전쟁이고, 걸프(Gulf)전이 TV전이었고 금번 이라크전은 인터넷전이었던다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군도 유사시 국민의 지지와 우방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철

저하게 미디어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4.5 이라크전에서도 군수의 중요성이 부각됨

과거 걸프전을 지휘했던 뉴먼 슈아르츠코프 장군은 “현명하지 않는 지휘관은 「작전」을 논하지만, 뛰어난 지휘관은 「군수」를 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그의 부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돌을 모을 때부터 군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고대전쟁시 최초에는 음식과 마초의 현지획득과 무기의 자체 충당방법에 이루어졌으나 전쟁이 시간적으로 길어지고 공간적으로 넓어지며, 복잡해짐에 따라 모든 것을 현장에서 획득할 수 없게 되자 전투에 표준화된 장비와 무기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조직을 지원하는 군수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과거 세계전사를 보면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의 실패도 그 원인이 「군수」라는 측면이 꽤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고대 전쟁사에서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시 수나라는 100만명이 출동했지만 병력의 90% 가까이는 식량과 무기를 운반하는 단지 「병참수단」으로써 운용했고, 6. 25전쟁시 낙동강 방어전투에서도 남한 전지역을 석권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북한군이 공격기세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군수」측면에서의 문제점 노출로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걸프(Gulf)전에 대해서 전 미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예비역 대장 고든 R. 설리번은 그의 저서 「장군의 경영학(Hope is not a method)」 내용 중 ‘걸프(Gulf)전의 승리와 현실’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군수 관련 미흡분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대규모 병참시설과 재고품에 기초한 병참업무체계는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모델이다.
- 세계의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병력을 배치하는 우리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
- 미국은 페르시아만으로(Gulf지역) 약 4만여개의 컨테이너를 보냈지만, 첨단추적 및 재고조사의 부재로 대개의 경우 소재확인이 어려웠으며,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열어보는 수고를 했고, 최선에 패트리엇을 초기에 무작위로 쏘아대는 바람에 기업이 공급속도를 맞추지 못했다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금번 이라크 전쟁이 군수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교훈을 남겼는지 필자는 매우 흥미롭게 접근하였으나 미국의 공개된 자료들이 미흡하여 극히 제한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금번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보면 바그다드라는 도시를 확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병참선 확보」 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미·영 연합군의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병참선 신장에 따른 보급로 확보와 물자를 전방에 수송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3월 29일 경부터 발생했다. 미 보병 제 3기계화사단이 이라크 중부 나자프 인근까지 진격했을 때 병참선은 300km 신장되어 적기에 보급이 제한됨에 따라 기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렇듯 미군의 작전에 어려움이 발생된 것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등 주변국가로부터 병력수송과 군수 지원기지 등을 제공받지 못하여 제한된 병참선에 의존
- 움 카스로 → 바스라 → 나시리아 등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함
- 병참선 확보에 필요한 주요도시(바스라, 나시리아 등) 점령에 진격 속도가 지체됨
-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보급품 수송을 위한 지상, 공중 이동 수단이 마비됨
- 미국의 사담 국제공항 점령으로 (이라크 남쪽 20km) 군수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옴

제 2차 세계대전 때 “사막의 여우”로 맹위를 떨쳤던 롬멜장군은 “사막이 전략가들에게 「꿈」이지만 병참가들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했듯이 금번 이라크전쟁에서 롬멜의 말이 미군들에게 그대로 입증되었던 것이다.

금번 이라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은 사전에 군수지원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였다. 지원차량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포장 및 화물별 식별을 위한 코딩표식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대에서 군수지원 발전과 더불어 과거 군사력투사의 경험은 미군으로 하여금 지구 반대편 이라크에서의 작전템포 유지를 가능케했다. 금번 작전기간 중 미군은 1일 4만 갈론의 물과 30만개의 전투식량을 사용하였으며 군수지원을 위해서 G-day로부터 4월 11일까지 항공기 7,100 소트를 운영하였고 5만 5천톤의 화물을 운반하였으니 실로 미군의 능력은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금번 미군이 걸프(Gulf)전과 비교해서 1/2병력 규모를 투입하고 기동성을 강조한 것도 군수지원측면에서의 제한사항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에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었다.

5. 결론

개인, 가정, 기업, 단체 등 모든 것들이 사회 /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여 후퇴하거나 소멸되는 현상, 즉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처럼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도산되는 많은 기업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군은 한반도에 「통일된 평화지대」 정착이라는 최대 국민의 염원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때 미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얼마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국방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필자가 한반도 안보 환경을 평가해 볼 때, 한반도는 남한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화해·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군사적 위협을 시도하는 등 도리어 안보위협이 더욱 증가되었으며, 주변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증강은 우리나라에 양(良)은 양(良)으로, 질(質)은 질(質)로 대응해야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쫓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군사과학 기술발전과 군사혁신의 가속화를 통하여 전쟁수행 방식이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관계변화 등 국방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미군의 현대 전쟁분석 내용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기초하여 한국군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정. 2003. 『미국의 현대전쟁과 한국군의 과제』. 군사문제연구원.
- 김행복. 2001. “소련-아프가니스탄전쟁의 역사와 교훈”. 『군사』 제43호. 군사편찬연구소.
- 남정옥·우규열. 2002.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분석과 교훈”. 『전사 제 44호』. 군사편찬연구소.
- 노병천. 1989. 『도해 세계전사』. 연경문화사.
- 노병천. 1999. 『도해 손자병법』. 연경문화사.
- 박현욱. 2003. “이라크 전쟁 양상 분석”. 『군사세계 2003년 5월호』.
- 송인영. 2002. 『5사(事) 7계(計)’의 의미로 본 걸프전』. 월간 국방기술정보.
- 이태호. 2003. 『이라크전쟁의 교훈분석』.
- 전재성. 2003. “미-이라크전의 전후처리과정 분석”. 『국가전략 2003년 9권 2호』
- 정성화. 2003.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분석”. 『공군전투발전단』.
- 조성진. 2003. “이라크전 분석과 한반도 적용”. 『군사세계 2003년 5월호』.
- 고든 설리번·마이클.V.하퍼. 1998. 『장군의 경영학』. 창작시대.
- 앨빈 토플러. 1997. 『전쟁과 반전쟁』. 한국경제 신문사.
- 치아오량 대령·왕시앙웨이 대령. 1999. 『초한전』.

Understanding Modern Warfare

-A focus on the most recent wars led by the United States-

Cho, Jung

A look back at the history of war reveals that leaders/nations which were able to recognize beforehand the change in weaponry or the concept of implementing war achieved victory in war(battle) while those that were not able to do so los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so too did the characteristics of war : from the first wave of war (ancient, Napoleon's war) → the second wave of war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 to the third wave of war (The Gulf War, and the War in Iraq).

Especially notable was the American led victory earned in the Afghanistan and Iraq wars which applied the Rapid Decisive Operations(RDO) concept according to the Effects Based Operations(EBO) following the Gulf War and 9.11.

This is the time when methods of warfare is changing through development in military science technology and military innovation and when the change of the defense paradigm including those of the Korea - U.S. alliance is required. We should therefore prepare for the future by delving into the analysis of American Modern warfare and learn from it.

Key words : The concept of war implementation, future wars.